



다산의 『채파유의(采葩遺意)』 연구

임 미 정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목 차

- | | |
|-----------------------|--|
| I. 서론 | 1. 『채파유의』와 『이담속찬』의 관계 |
| II. 다산의 조선 속담집 『채파유의』 | 2. 『이담속찬』의 초고
- 『백언시』와 『채파유의』 |
| 1. 『채파유의』의 이본(異本) | IV. 결론을 대신하여
- 『채파유의』에서 『이담속찬』까지, 다산의 속담 정리 과정에 대하여 |
| 2. 『채파유의』의 이본 대조 | |
| 3. 『채파유의』의 성격과 특징 | |
| III. 다산의 조선 속담 정리 과정 | |

I. 서론

『채파유의』는 조선의 속담을 모아 한역(漢譯)하고, 4언 2구의 형식으로 운까지 맞추어 놓은 한역속담집(漢譯俗談集)이다. 이 책의 서문에는 “임자년 유하에 불가무차인이 서문을 쓰고 불가무차인이 편집하였다.[壬子榴夏, 不可無此人序, 不可無此人輯編.]”라 하여 편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권수제 아래에 “丁若鏞 茶山 輯編”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다산의 저작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서문의 기록을 따르자면, 『채파유의』는 1792년 5월 다산의 나이 31세에 완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채파유의』는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 실리지 않았기에 연구자들이 알지 못했고, 2007년 5월 서여 민영규 교수 소장본이 일반에 공개되면서 존재가 알려졌다.¹⁾ 현재까지 확인되는 『채파유의』는 2종으로 모두 필사본이다. 연세

1) 『채파유의』는 <민영규 선생 기증 귀중고서 특별전 : 2007년 5월 11일 ~ 5월 26일,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그 존재가 알려졌고, 허경진의 해제를 통해서 연세대학교 소장본이 처음 소개되었다. 허경진의 해제는 「『采葩遺意』外」, 『연세대학교 고서해제』, 평민사, 2009, 395~401쪽.

대학교에 1종, 국립중앙도서관에 1종이 있다.

『채파유의』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다산의 새로운 저작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책이 조선의 속담을 수록하고 있기에 속담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하겠지만,²⁾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부분은 이미 알려진 다산의 속담집인 『이담속찬』과의 관계를 해명하는 것이다. 『채파유의』에는 조선의 속담만 실려 있지만, 『이담속찬』에는 중국의 속담과 조선의 속담이 모두 존재한다. 동일 저자의 손에서 같은 성격의 저작이 산출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자료들을 살핀다면, 다산의 저술 과정에 대한 탐색까지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다산의 새 저작으로서의 『채파유의』를 소개한다. 이 과정에서 『채파유의』의 문헌학적인 검토와 더불어 현전하는 이본을 대조해본다. 이어서 『채파유의』의 서문을 통해 저자의 저술 의도를 살펴서 『채파유의』의 성격과 특징, 다산의 속담에 대한 인식을 밝히는 것이 이 글의 첫 번째 목표이다. 다음으로는 조선 속담집인 『채파유의』가 『이담속찬』과 어떤 관계에 놓여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이담속찬』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했던 ‘초고’ 형태의 저작들을 정리한다. 다산의 새 저작인 『채파유의』를 통해서 이를 다산의 저술 과정을 살피는 것이 이 글의 최종 목표인 것이다.

II. 다산의 조선 속담집 『채파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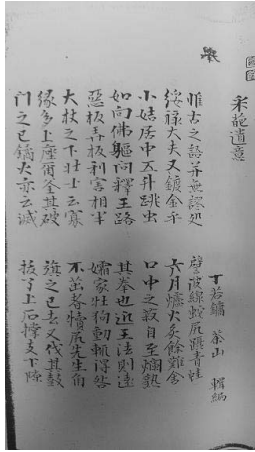
『채파유의』는 서여 민영규 교수의 소장본이 연세대학교에 기증되면서 처음 학계에 존재가 알려졌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이전부터 『채파유의』가 『이담속찬』과 함께 『야언(禁言)』이라는 표제로 묶여있었다. 표제와 권수제가 달랐고 저자도 밝혀지지 않았기에 다산 연구자들의 주목을 못 받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채파유의』는 연세대 소장본이 소개되면서 함께 알려졌다.³⁾ 따라서 이 장에서는 『채파유의』의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현전하는 이본을 우선 살펴보도록 한다.

2) 『채파유의』 이전의 조선 속담은 홍만종(洪萬宗 1643~1725)의 『순오지(旬五志)』에 143장, 이익(李瀾, 1681~1763)의 『백언해(百諺解)』에 389장, 신후담(愼後聃, 1701~1761)의 『찰이록(察邇錄)』에 52장,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열상방언(測上方言)』에 99장이 수록되어있다. 이들에 이어 만들어진 『채파유의』에는 820장의 조선 속담이 실려 있어 분량이 가장 방대하다. 조선의 속담 연구와 관련해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역하고 운까지 맞춘 것은 『열상방언(測上方言)』에서 처음 시도되었는데, 『열상방언』은 3언 2구를 1장으로 하여 운을 맞추었고, 『채파유의』는 4언 2구에 운을 맞추어서 사언시에 가까운 것이 특징이다.

3) 허경진, 앞의 해제,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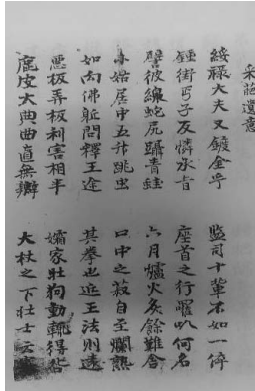
1. 『채파유의』의 이본(異本)

(1) 연세대학교 소장본⁴⁾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채파유의(采葩遺意)』는 민영규 교수가 2005년 5월 25일에 연세대학교에 기증한 것이다. 제목은 표제와 권수제 모두 “采葩遺意”로 되어있다. 1책으로 된 필사본이며 책 크기는 26.3×16.8cm이다. 서문(序文) 끝에 “壬子榴夏, 不可無此人序, 不可無此人輯徧”라 하였다. 속담은 한역(漢譯)되어 4언 2구가 1장(章)을 이룬다. 한 면에 10행 2단으로 되어있으며, 모두 52면에 걸쳐 820장(章)이 실렸다. 다만 연세대학교 소장본은 『채파유의』에 이어 『시가(詩家)』라는 제목의 칠언절구 253수가 27면에 걸쳐 이어져 있다. 이 시들은 다산을 비롯 이학규, 정홍순, 이정환 등의 시인데 서·발문도 없이 시만 남아있어서 함께 묶인 이유는 알 수 없다.

(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한古朝48-15)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채파유의(采葩遺意)』는 “箚言”이라는 표제로 된 책에 수록되어 있다. 1책으로 된 필사본이며, 책 크기는 23.1 x 17.6 cm이다. 『이담속찬』이 앞부분에 수록되어있고 『채파유의』가 이어져있다. 『채파유의』는 서문에 이어 한 면에 4언 2구가 1장을 이루는 속담이 8행 2단으로 40면에 걸쳐 필사되어있다. 『채파유의』에 앞서 수록된 『이담속찬』은 중국 속담부분만 필사되어있어서,5) 최종적으로 『야언(箚言)』은 중국과 조선의 속담을 모은 책이 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채파유의』에는 연세대학교 소장본과는 다르게 한역한 속담 옆에 한글 표기가 몇 군데 덧붙여있어서 주목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

4) 연세대학교 소장본 『채파유의』는 2009년에 출간된 해제본에서 청구기호가 기재되지 않았는데, 현재까지도 청구기호가 부여되지 않았다.

5) 『이담속찬』이 중국속담에 이어 조선의 속담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 최종 형태임을 고려한다면, 『이담속찬』의 중국 속담부분과 『채파유의』만을 실은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담속찬』의 조선 속담부분과 『채파유의』가 일정 관계가 있으리란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표1〉 『채파유의』의 한글 표기

	속담 본문	한글 표기 내용
1	四投無空, 俱痰藜鐵. 모로 던져도 마름쇠	痰藜鐵: 물음쇠
2	天圓之子, 何時用彼. 언제쓰자는 하늘타리냐?	天圓之子: 하늘타리
3	取他麵棍, 馱牛於圈. 흥두깨로 소를 몬다.	麵棍: 흥도쇠
4	霍永醋漿, 有何相當. 고드름 장아찌	霍水: 콧어름

〈표1〉에서 보는 것처럼 질러철(痰藜鐵)을 ‘물음쇠’, 천원지자(天圓之子)를 ‘하늘타리’ 등으로 표기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채파유의』가 조선의 속담을 토대로 한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의 경우는 모두 한자어에 대응하는 한글 단어를 기재한 것인데, 표에는 없지만, “蒿菖之畝, 一糞之狗.[상추밭에 똥 싼 강아지]”의 경우에는 와거(蒿菖) 옆에 ‘불우’라고 하였는데, 이 속담이 오해와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 ‘불우’라는 표기를 한 것이다.

2. 『채파유의』의 이본 대조

지금까지 『채파유의』의 이본 두 종을 서지 사항 위주로 살펴보았다. 연세대학교 소장본(이하 연세대본)은 속담이 모두 820장이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하 국립중도본)은 638장으로 분량으로 보았을 때에는 연세대본이 많다. 이 두 본은 속담의 순서도 다르다. 분량이 많은 연세대본을 기준으로 대조해보면, 국립중도본은 모두 638장으로 411번째 속담 “老人之養, 飲食爲杖.”까지는 연세대본 1번에서 808번까지의 속담을 순서대로 발췌하여 필사하다가, 412장부터는 다시 연세대본의 시작부분으로 가서 빠뜨린 부분을 채워나갔다. 국립중도본의 마지막 속담인 638번째 “貧人喜賑, 不適富吝.”은 연세대본에서는 820장중 582번째 속담에 해당한다. 이를 봐서는 국립중도본이 완성된 형태는 아닌 듯하다.

책의 형태적인 측면에서 보이는 차이는 속담의 수와 배열 순서인데, 이 절에서는 두 본을 정치하게 대조하여 차이점을 유형별로 정리해 본다.

(1) 연세대본의 오류

〈표2〉에서 제시된 두 본간의 상이한 사항들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운자(韻字)가 수정된 것이고, 두 번째는 운자와 관계없는 1,2,3자와 5,6,7자가 교체된 것이다. 먼저 운자의 수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연세대본이 선행본(先行本)이라는 것이다. 국립중도본에서 연세대본의 잘못된 압운이 교정된 모습이 보이는 것은 후대본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다음으로 운자가 아닌 한자를 교체한 〈표2〉의 3번과 4번의

〈표 2〉 연세대본의 오류

	연세대본	국립중도본	수정 사항
1	如向佛軀, 問釋王路. (7) ⁶⁾	如向佛軀, 問釋王途. (9)	路→途. 軀와 途는 虞운에 해당함.
2	以名而取, 德龍之取. (25)	以名而取, 德龍之父. (28)	取→父. 取와 父는 虞운에 해당함.
3	射空之鏃, 偶爾中鵠. (62)	射空之鏃, 偶爾中鵠. (460)	躬→射. 문맥상 射가 맞음.
4	監司一輩, 不如一倅. (113)	監司士輩, 不如一倅. (2)	一→士. 문맥상 士이 맞음.
5	面似姑姑, 夕不糊口. (188)	面似姑姑, 夕不口糊. (98)	糊口→口糊. 姑와 糊는 虞운에 해당함.
6	秘語切戒, 併戒傳語. (284)	秘語切戒, 併戒傳話. (522)	語→話. 戒와 話는 卦운에 해당함.
7	僧行俗行, 隨分究竟. (461)	僧行俗行, 隨分究竟. (591)	音→竟. 行과 竟은 敬운에 해당함.

예를 보자. 3의 속담은 ‘공중에 쏜 화살이 우연히 과녁을 맞히다’의 뜻이기에 연세대본의 ‘躬’은 틀렸고, 국립중도본과 같이 ‘射’로 해야 한다. 『채파유의』에 앞서 만들어진 홍만중(1643~1725)의 『순오지』에서는 같은 속담을 “射空中鵠”이라 한역하였고, 이덕무(李德懋, 1741~1793)는 『열상방언』에서 “仰射空, 貫革中.”라 하였는데 모두 ‘射’로 표현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4번의 속담도 ‘감사 한 명이 한 명의 수령만 못하다’ 보다는, ‘감사 열 명이 한 명의 원님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이 맞다.

속담의 분량으로는 국립중도본이 연세대본에 많이 못 미치지만, 국립중도본이 무비판적으로 선행본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류를 개정하며 완성도를 높인 흔적을 볼 수 있었다.

(2) 국립중도본의 오류

<표3>은 국립중도본의 오류를 표로 제시한 것이다.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오류 양상을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글자의 순서를 바꾼 것이고, 두 번째는 글자를 혼동하여 비슷한 형태의 다른 글자를 쓴 경우이다. <표3>의 1과 2가 글자의 순서를 바꾼 예이다. 1의 경우 일반적으로 東과 西를 읽거나 쓸 때에 ‘東-西’의 순서로 하는 것이 맞지만, 여기에서는 압운을 위해 ‘西-東’의 순서로 한 것이다. 이것을 국립중도본이 ‘東-西’로 바꾸어 놓으니 운이 맞지 않게 되었다. 2의 경우도 운자가 들어있는 3,4번째 글자의 순서를 바꾸다보니 운이 틀려졌다.

다음 3~6번은 필사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실수를 보여주는 예이다. 국립중도본은 선행본을 필사하면서 ‘曲’을 ‘典’으로, ‘彰’을 ‘影’으로, ‘寔’을 ‘寔’으로, ‘卵’을 ‘段’으로 잘못 옮겼다. 이들 글자는 한 눈에 봐도 형태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자들의 오류로 인해 속담의 뜻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러한 오류는 번역을 고려하지 않은

6) 각 속담 옆에 부기한 일련번호는 각 본에서 속담을 순서대로 번호를 매겼을 때의 해당 속담의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표 3〉 국립중도본의 오류

	연세대본	국립중도본	오류 사항
1	初年勸農，不知西東. (27)	初年勸農，不知東西. (26)	西東→東西. 農과 東은 운을 맞추기 위해 굳이 '西東'으로 한역한 것이다. 해석은 東西으로 해도 되지만 표기는 西東으로 해야 한다.
2	能咬之狗，人亦眷厚. (82)	能齧狗之，人亦眷厚. (470)	之狗→狗之. 狗와 厚는 上聲의 有운으로 압운한 것이다. 글자의 순서를 바꾸면 운이 맞지 않는다.
3	執盃之臂，內曲斯易. (194)	執盞之臂，內典斯易. (477)	曲→典. 술잔 든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뜻이기에 曲을 쓰는 것이 맞다. 典과 曲의 형태가 비슷하기에 필사 과정에서의 오류라고 보여진다.
4	三歲侍湯，孝名未彰. (319)	三歲侍湯，孝名未影. (543)	彰→影. 삼년 구병에 불효한다는 뜻인데, 彰이 맞다. 彰과 影의 형태가 비슷하여 생긴 오류이다.
5	他人宴盤，梨柿何干. (339)	他人寔盤，梨柿何干. (182)	宴→寔. 남의 잔치에 감나라 배나라한다는 뜻인데, 잔치를 나타내는 寔을 형태가 비슷한 寔으로 잘못 썼다.
6	備說人短，詆趾如卵. (478)	備說人短，詆趾如段. (597)	卵→段. 발꿈치가 달걀 같다고 남을 나무란다는 속담이다. 흔히 머느리 발꿈치가 달걀 같다고 한다. 卵을 형태가 비슷한 段으로 잘못 필사했다.

채 단순 필사 작업을 할 때에 나타난다. 국립중도본이 <표2>에서 보았듯이 선행본을 개정 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떠올려본다면, 아마도 국립중도본 이전에 연세대본의 오류가 수정된 다른 본이 있었고, 그 본을 저본으로 필사하면서 국립중도본이 단순 실수를 범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서지 사항을 비롯하여 <표2>와 <표3>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아래와 같은 결론으로 정리할 수 있다.

- ① 연세대본은 820장, 국립중도본은 638장의 한역 속담을 수록하고 있기에 속담의 분량면에서는 연세대본이 많다.
- ② 연세대본에서 압운되지 않았거나 틀린 글자를 국립중도본이 개정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에 연세대본은 국립중도본의 선행본이다. 더불어 국립중도본은 선행본을 필사할 때 생기는 단순 실수를 다수 보여주고 있기에 연세대본에 비해 나중에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연세대본과 국립중도본은 속담의 수록 순서가 매우 다르다. 연세대본이 선행본임을 염두에 둔다면, 국립중도본은 2/3선까지는 연세대본의 820장 분량의 속담을 끝부분까지 발췌하면서 필사하다가, 마지막 1/3선은 다시 연세대본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앞부분에서 빠뜨린 속담을 보충한 모습이다.
- ④ 연세대본은 국립중도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국립중도본이 연세대본에 비해 운자를 개정하는 등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필사과정에서의 단순 실수도 많다. 따라서 연세대본을 저본으로 하면서 개정과 동시에 실수를 범했다고 보기보다는, 연

세대본의 오류가 개정된 다른 본을 저본으로 필사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두 본간에는 이형자(異形字)가 100여 군데 나타나며, 분량이 적은 국립중도본에서, 연세대본에는 없는 속담이 존재한다.⁷⁾ 이는 또 다른 본이 존재했으리라는 가설에 힘을 더하는 증거이다.

- ⑤ 현재로서는 연세대본을 분량이나 내용의 완성도면에서 선본(善本)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립중도본에서 운을 맞추어 글자를 개정한 것이나 한글표기를 덧붙여서 속담의 이해를 도운 것은 필요에 따라 참조할 것이다.

3. 『채파유의』의 성격과 특징

지금까지 현전하는 『채파유의』 두 종을 형태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채파유의』의 서문을 검토하여 다산이 조선의 속담을 수집하고 한역한 의도를 알아본다. 이를 통해 『채파유의』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옛날에는 시를 채집하여 국풍으로 삼고 음악의 반열에 두어서, 향당에서 쓰고 나라에서도 썼다. 감정을 드러내고 권장하고 벌주는 기틀로 의탁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여항민속이 탄식하고 영탄하는 말이다. 왕은 펼치고 살펴보고, 배우는 자는 외우고 익히니 시교가 이에 행해졌다. 말세가 되자 정치가 쇠퇴하여 이러한 도가 사라졌으니, 다듬은 후의 시는 다만 꾸미거나 잠꼬대하는 소리일 뿐이다. 어찌 쓸 수 있겠는가!

지금 오직 위항의 이언(俚諺)만이 약간 옛날의 시에 가깝다. 무릇 이언의 흥은 아낙네와 아이들의 말과 여러 천민의 입에서 나온 것이어서 깊거나 화려한 말은 없지만, 왕왕 인정을 바로잡고 사리에도 가깝다. 고요히 탐구하고 두루 경험해보니 반드시 또한 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게다가 일을 해결하고 사람을 깨우치는 것이 성현의 가르침보다 나음이 있으니 어찌 그것을 구하지 않겠는가! 천한 것은 깨닫기 쉽다 하였으니, 민속에 통한다면 막힘이 없을 것이다.

공자가 외출하였는데 말이 달아나 남의 곡식을 먹고 있으니, 농부가 말의 고삐를 끌고 가버렸다. 자공이 말을 꾸며서 그를 설득하려했으나 실패하였다. 나중에 마부를 시켜 가보게 하니 말 한마디에 농부가 기뻐하며 공자의 말을 돌려주었다. 자공의 지혜가 마부에게 미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부의 변론 때문이다. 자공의 변론은 인의

7) “少飯而止，須下細屎.”, “責捕之鼠，只宜除去.”는 국립중도본에만 보이고 연세대본에는 없는 속담이다.

도덕에 대한 말이기엔 농사꾼의 귀에 용납되지 않았으며, 누항의 거칠고 속된 말은 쉽게 움직여 어리석은 식견에 이르기 때문이다. 시경에서 “나무꾼에게 물어보라” 하였으나, 나무꾼의 말이 어찌 성인의 지혜의 위로 나며, 성인의 지혜에 반하여 취할 수 있겠는가. ‘곡식이 크게 사람을 알지 못하며 자식이 악함은 알지 못한다’가 열전에 보이며,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는 되지 않는다’가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 밖에 ‘직현곡구(直弦曲鉤)’, ‘척포두숙(尺布斗粟)’와 같은 것들은 이언에서 취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언을 폐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돌아보건대 채집한 것들은 또한 시일뿐이다. 또한 시에는 부와 비와 흥이 있다. 지금 무릇 이언이 일을 취하여 곧바로 진술한 것은 부의 종류이다. 사물을 끌어와 비유로 취한 것은 비의 의이다. 그 말을 유희하고 뜻을 의탁한 것은 거의 흥이 아니겠는가? 진실로 그 말이 취할 만하니 어찌 고급과 현우와 세대와 아속의 구별이 있겠는가?

내가 여항의 거리를 다니다가 듣는 대로 따라 쓰고 운을 붙였다. 속된 것에서부터 우아한 것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한 것인데, 모은 것이 한 권이 된다. 그런대로 더위를 식히고 졸음을 이길만한 자료로 삼고자 한다. 이름하기를 ‘채파유의’라 하였다. 속담은 시가 아니지만, 속담을 뽑아서 권선징악의 기틀로 의탁하였으니, 시의 남긴 뜻이 없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임자년 오월에 불가무차인이 서(序)하고 불가무차인이 편집(編輯)하다.⁸⁾

『채파유의』 서문의 전문(全文)이다. 다산은 서문의 시작에서 『시경』부터 거론하고 있다. 『시경』의 시는 백성들의 시를 채집한 것인데, 그들의 시를 수집하여 민심을 읽어 정사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지금에 와서는 옛날의 ‘시경시’와 같은 백성들의 솔직한 감정을 담은 시가 지어지지 않고, 정사에 쓰이지도 않지만, 아낙네와 어린 아이들, 여러 천민의 입에서 나오는 위항의 ‘이언’에 그 유풍이 남아있다고 하였다. 특히, 자공(子貢)과 마부의 예를 들

8) “古者采詩，以爲國風，列于樂歌，用之鄉黨，用之邦國。以寓感發勸懲之機，斯皆閭巷民俗，咨嗟詠歎之辭也。王者陳而觀之，學者誦而習之，詩教行焉。世降政衰，而此道廢矣，刪後之詩，直雕鏤呻吟而已。安所用哉！今惟委巷俚諺，稍於古之詩近之。夫俚諺之興，始於婦孺之辭，而諸輿僮之口，無玄奧之旨，藻華之辭，而往往切人情通事理。默究而傍驗，要亦不悖於道。抑析事曉人，有捷於典訓者，豈不以得之！淺而易悟，通乎俗而不滯歟。孔子出遊，馬逸食禾，野人繫之。子貢修辭而曉之，不得然。後使馬圉往，一言而野人喜還其馬。非子貢之智不及馬圉，馬圉之辯，辯於子貢，仁義道德之說，不入田父之耳，鄙俚粗俗之言，易動至愚之見故耳。詩曰，‘詢于芻蕘’，芻蕘之言，豈出聖智之上，而聖智之反有取哉。‘莫知苗碩，莫知子惡’，見於傳，‘寧爲鷄口，無爲牛後’，著於史，其他‘直弦曲鉤’，‘尺布斗粟’之類，莫不有取於俚諺，俚諺之不可廢也審矣。顧有采之者，斯亦詩而已。且詩之有賦比興。今夫俚諺之就事直陳者，賦之類也。引物取喻者，比之義也。其遊辭而托意者，不幾於興乎。苟其言可取，何有乎古今賢愚細大雅俗之別。余於閭井街術之中，有聞即記隨而韻之，欲其自俚而趨雅。衰成一卷，聊以爲消暑禦眠之資。名之曰，采葩遺意。諺非詩也，采之以寓勸懲之機，不無詩之遺意云爾。壬子榴夏，不可無此人序。不可無此人輯編。〔『采葩遺意』「序」〕

어서 자공의 어려운 말은 농부가 알아들을 수 없고 마부의 쉬운 말이어야만 농부를 설득시킬 수 있었음을 예를 들었다. 이를 통해서 백성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 곧 쉬운 말로 해야 함을 밝혔다. 또한 예전의 역사서에서도 속담을 인용하는 경우도 많기에 이언을 수집하는 일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고대의 천자는 채시관(採詩官)을 시켜 백성들의 시를 채집하였고, 수집된 시의 뜻을 살펴 정사에 반영하였다. 다산이 『시경』을 문두에 내세운 것은 그가 채시관의 역할을 자임했기 때문이다. 다산은 여항의 이언을 듣는 대로 모으고 기록하였다.

‘채파유의(採葩遺意)’에서 ‘채파(採葩)’는 이언을 모았다는 뜻이며, ‘유의(遺意)’는 이러한 이언에 시와 같은 뜻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채파유의』는 서문에서 밝힌 편자의 의도대로 백성들의 이언, 곧 속담을 820장이나 수록하였으며, 이를 4언 2구로 한역(漢譯)하고 운(韻)까지 맞추어놓았다. 속담을 한역하고 4언으로 시에 가깝게 운을 맞춘 것은 『채파유의』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다.⁹⁾ 『채파유의』와 『시경』은 민심을 읽고 또 그들을 교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의 속담 수집과정이 흡사하며, 또한 수집된 속담을 한역하고 운까지 맞춘 것으로 보서는 『채파유의』가 『시경』의 사언시(四言詩)를 의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서문을 따르자면 『채파유의』가 만들어진 시기는 1792년 5월이다. 1789년 문과에 급제한 다산은 이 무렵 홍문관(弘文館)의 수찬(修撰)으로 경연(經筵)에 참석하며 규장각(奎章閣)의 초계문신(抄啓文臣)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정조(正祖)가 『시경』에 관심을 가져 시경강의(詩經講義)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1789년에 선발된 그의 이름이 『홍재전서(弘齋全書)』, 『시경강의(詩經講義)』, 「조문기유경술선(條問己酉庚戌選)」에 보인다. 다산은 이 조문(條問)들을 1791년 가을에 일괄 반급 받았다. 다산이 이 당시 『시경(詩經)』의 문학적 효용성에 한참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기였으므로, 자연스럽게 조선의 속담을 수집해서 ‘시경투’로 번역하려고 시도한 듯하다.¹⁰⁾

그러나 『채파유의』는 최종적으로 다산의 문집에 실리지 않았고 잊혀진 저작이 되었다. 다산의 저작 중에는 『채파유의』와 동일한 성격의 『이담속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담속찬』과 『채파유의』가 어떤 관계에 놓여있는지를 해명할 수 있다면, 『채파유의』의 위치를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보도록 한다.

9) 『채파유의』 이전에도 조선의 속담을 모아서 한역한 것으로 홍만종의 『순오지』와 이익의 『백언해』, 이덕무의 『열상방언』이 있다. 다만 『백언해』는 4언 2구로 한역했으나 운을 전혀 맞추지 않았고, 『열상방언』은 3언 2구에 운을 맞추었을 뿐이다.

10) 허경진, 앞의 해제, 참조.

Ⅲ. 다산의 조선 속담 정리 과정

지금까지 다산의 『채파유의』라는 저작에 대해 살펴보았다. 『채파유의』는 다산이 젊은 시절 완성한 속담집으로, 조선의 속담을 방대하게 수집하여 4언 2구의 형식으로 한역하고 운까지 맞추어 놓은 것이다. 『시경』의 효용에 주목했던 시기에 꾸밈없는 백성의 목소리가 여향의 속담에 남아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채파유의』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 『채파유의』는 현재 『여유당전서』나 『여유당전서보유』, 올해 출간된 『정본 여유당전서』에도 수록되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존재가 알려져서 연구자의 관심을 받지 못한 사실도 있지만, 다산의 저작인지에 대한 진위 여부부터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채파유의』가 『이담속찬』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서, 『채파유의』를 둘러싼 여러 의문점들을 해결하고 그 위치를 확립하고자 한다.

1. 『채파유의』와 『이담속찬』의 관계

『채파유의』는 820장의 방대한 조선 속담을 담고 있는 속담집이나, 조선의 문인들 중 누구도 『채파유의』를 보았다는 글을 남기지 않았다. 다산 자신도 이 책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고, 오직 연세대본 『채파유의』에 보이는 “丁若鏞 茶山 輯編”이라는 기록만이 다산의 저작임을 알려주고 있다.

익히 알려진 다산의 저작 중에도 속담집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이담속찬』이다. 『이담속찬』에는 중국 속담 177장과 조선의 속담 214장이 수록되어 있다.¹¹⁾ 이 중 중국 속담은 글자 수와 운을 맞추지 않았고, 조선 속담은 모두 214장 중 210장이 4언 2구에 운을 맞추어 놓았다. 조선 속담 부분이 『채파유의』와 같은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담속찬』의 서문을 살펴보자. 『이담속찬』의 서문은 편찬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왕씨(王氏)의 『이담(耳談)』은 고금(古今)의 속담을 모은 것이다. 경사(經史)에서 기록한 바가 자못 빠진 것이 있어서 지금 다시 수록하였고, 여기에 승지 석천 신작이 십여 개를 채록하여 보태주었다. 이어서 성호선생의 『백언해(百諺解)』는 우리나라의

11) 『이담속찬』의 속담 개수는 이본마다 같지 않은데, 기존 연구에서 밝힌 대로 『이담속찬』의 선본인 장서각본을 기준으로 하였다. (임미정, 「『이담속찬』의 이본 연구」, 다산학 18호, 2011년, 239~271참조.)

속담인데 모두 운을 맞추지 않았기에, 이제 운을 붙일 만한 것을 골라서 운을 붙였고, 이어서 또 빠진 것을 수록하였다. 둘째 형님이 흑산도에 있을 때에 또 수 십장을 수집하여 부쳐 주셨으므로, 지금 모두 합하여 편집하고 이름을 『이담속찬(耳談續纂)』이라고 하였다. 가정(嘉慶) 경진(庚辰) 봄에 철마산초(鐵馬山樵)가 쓰다.¹²⁾

서문에서 조선 속담의 편찬과정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 정리하자면, 우선 성호의 『백언해』에서 운을 붙일만한 속담을 뽑아서 운을 붙였고, 『백언해』에서 빠뜨린 속담을 추가로 수록했으며, 마지막으로 정약전이 부쳐준 속담을 보태었음을 알 수 있다.

다산이 『이담속찬』 저술 과정에서 참조했던 『백언해』는 성호 이익이 조선의 속담을 모아 한역한 것으로, 글자 수를 모두 4언 2구로 맞추었고 모두 389장이다. 이 『백언해』는 운을 맞추지 않았을 뿐, 글자 수는 『채파유의』나 『이담속찬』의 조선 속담과 동일한 4언 2구이다. 다산은 서문에서 『백언해』에 운을 붙였다고 하였는데, 「사암선생연보(俟菴先生年譜)」에도 “1801년 여름에 성호가 모은 1백 마디의 속담에 운을 맞춰 지은 『백언시』가 이루어졌다.”¹³⁾고 되어있어 참고할 수 있다.

위의 기록들에 근거하자면, 다산은 서문에서 『백언해』만 거론했으나 『백언해』에 운을 붙인 『백언시』가 1801년에 완성되었고, 이 『백언시』는 『이담속찬』의 초고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감안한다면, 『채파유의』 역시 『백언시』와 같이 초고로서의 역할을 담당했기에 서문에 기록되지 않은 저술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채파유의』와 『백언해』, 『백언시』, 『이담속찬』에 수록된 속담을 대조해서 각 저술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 본다.

2. 『이담속찬』의 초고 - 『백언시』와 『채파유의』

(1) 『백언시』와 『이담속찬』

다산의 『이담속찬』이 최초의 기획에서 완성분을 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채파유의』가 1791년 다산의 나이 31세에 만들어졌고, 성호의 『백언해』에 운을 붙여서 『백언시』가 완성된 것이 1801년 여름, 그의 나이 40세가 되던 때였다. 이 때부터 19년 후 1820년 다

12) “王氏耳談者，古今鄙諺之萃也。經史所著，頗有脫漏，今復收錄。石泉申承旨紳亦以十餘語採而助之。因念星翁百諺，即吾東鄙諺，而皆不叶韻，今取可韻者韻之，因又收其脫漏。先仲氏在茲山海中，亦以數十語寄之，今會通爲編，名之曰，‘耳談續纂’。嘉慶庚辰春，鐵馬山樵書。” 『與猶堂全書』 第一集，「雜纂集」 第二十四卷，『耳談續纂』，〈序〉（『韓國文集叢刊』 281권 531면）

13) 송재소 저, 『茶山詩研究: 附 茶山年譜』, 창작과 비평사, 1986, 285~286면 참조.

산의 59세 때에 『이담속찬』이 만들어졌으니, 다산은 수십 년에 걸쳐 속담집에 대해 계획하고 정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중국 속담과 조선 속담을 합한 형태로 저술을 완성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담속찬』의 초고인 『백언시』와 『채파유의』를 『이담속찬』과 대조해 본다. 실제 속담의 대조를 통해 이들이 초고였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이 장의 목표이다. 먼저 다산이 『이담속찬』 서문에서 밝힌 『백언해』부터 살펴본다. 다산이 『백언해』를 토대로 운을 맞춘 것은 그의 ‘속담관’에 동의하였기 때문이다. 「백언해발(百諺解跋)」을 보면,

속담이란 비속한 말이다. 아낙네나 아이들의 입에서 만들어져 향간에 유행되고 있으나, 인정을 살피고 사리에 징험함으로써 뾰족 깊이 들어가 털끝처럼 미세한 부분까지 파고드는 점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처럼 널리 유포되어 오래도록 없어지지 않고 전해질 수 있었겠는가. 『시경』에 이르기를 “나무꾼에게 물어보라”라고 하였다. 나무꾼이 하는 말은 본디 경전의 뜻을 인용하거나 화려하게 꾸며대어 듣기 좋게 하거나 기분 좋게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런데도 그 말을 채용하였으니, 어쩌면 실제 일어나는 일들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경전에 보이는 것으로는 “사람들은 제 자식의 악함을 알지 못하고 제 밭의 곡식 싹이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와 같은 속담이 있는데, 책상 위에 올려놓고 후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으니, 이것이 나무꾼에게 물어본 증거라 하겠다. 이 말에 따라 집안일을 처리하고 국정을 처리하였으니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그 말이 세상에 도움이 된다면 어찌 말한 시대의 고금(古今)과 말한 사람의 성우(聖愚)에 구별을 두겠는가. 따라서 속담은 틀림없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일찍이 뒷골목에서 듣거나 길 가다 들은 속담이 있으면 그때마다 수시로 기록해 두었다. 얼마 후 한 시대에 통행된 방언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혹 가리키는 바가 혼동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 이에 몇 마디 말을 덧붙여 그 뜻을 풀이해 놓았다. 그리고 그 제목을 『백언해(百諺解)』라 하였다. 백(百)이라는 것은 큰 수라는 뜻이다.¹⁴⁾

14) “諺者，粗俗之談也。成於婦孺之吻，行於委巷之間，察之人情，驗之事理，有刺骨入髓，覈究乎毫芒之細者。不然其何能流而布之，傳久而不泯若是哉！詩曰‘詢于芻蕘’。芻蕘之爲言，固無據典引義，增華飾彩，可以悅耳而賞心者。然且採之，豈非蹈于實而適乎務哉！其見於經則‘莫知苗碩’之類，卽尊之丌上，播之後人，此爲詢之之證案。以之處家事措國政，要不可廢也。苟使言而裨益，何有於古今聖愚之別。諺之不可沒也明矣。余嘗有聞於閭井，聞於行道，輒隨而錄之。既而又懼夫一時方言，久或迷指，於是加之數語爲之解。目之曰‘百諺解’。百者，大數也。（『星湖先生全集』卷56「題跋」〈百諺解跋〉）

「백언해발」은 조선 속담을 한역하여 기록한 것 중 저작 의도를 살필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성호는 속담이 비루한 말이긴 하지만, 인정을 살피고 사리를 징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정이나 국정에 있어서 폐할 수 없는 것이기에 수집하여 기록했다고 밝혔다. 속담의 사회적인 기능과 공효성에 주목했던 성호의 속담관을 읽을 수 있다.¹⁵⁾

위의 발문은 다산이 조선의 속담을 모은 의도를 밝힌 「채파유의서」와 동일한 지향을 보여준다. 속담에 대한 인식, 수집한 목적도 같다. 이병휴의 기록에 의하면 1774년까지 『백언해』는 초고상태로 집안에 유전되고 있었다고 한다.¹⁶⁾ 두 서문의 방향은 같지만 다산이 『채파유의』의 서문에서 『백언해』를 밝히지 않은 것은 이 책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산은 『채파유의』가 완성되고 9년이 지나서야 『백언해』를 보고는 운을 붙여 『백언시』를 만들었고, 이 『백언시』에는 서문을 붙여 『백언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밝혔다.¹⁷⁾

다산은 『이담속찬』 서문에서 『백언해』는 운을 맞추지 않았기에 “운을 붙일 만한 것을 골랐다.[今取可韻者韻之]”고 하였다. 실제로 『백언해』는 모두 389장인데, ‘골라서 운을 붙인’ 결과물로서의 『백언시』는 155장이다. 『이담속찬』에서 조선 속담은 모두 214장이다. 이 중 손암 정약전이 준 60장의 속담을 제외하면 154장이 된다. 이 154장과 백언시의 155장을 대조한 결과 『백언시』 155장중 3장의 속담이 빠진 152장이 『이담속찬』에 수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¹⁸⁾

15) 김상홍, 「성호의 “백언해”고」, 『教育論叢』 제2집, 단국대학교, 1987. 82면 참조.

16) “...(상략)...『백언해(百諺解)』 등 여러 저술이 있어 이것도 거의 25,6책이 되는데, 모두 초고(草稿) 상태로 있다. 이것들은 등서해서 정본(淨本)으로 만들어 문집 뒤에 붙여야 하고, 또 시문 가운데 유집에 실리지 않고 이리저리 흩어져 있다가 나중에 나온 것들도 수집해서 속집(續集)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모두 그럴 만한 거리가 없으니, 이것은 후인이 이어서 완성하기를 기다린다. 갑오년(1774) 중추(仲秋)에 종자(從子) 병휴(秉休)는 삼가 적다.[百諺解等諸書, 亦將廿五六卷, 而皆在草稿, 此當釐出淨本, 以附文集之後, 又若詩與文之不載於遺集, 而散逸後出者, 亦當蒐緝爲續集, 而今皆未遑, 此則惟俟後人之紹成焉. 甲午仲秋, 從子秉休謹識.] (『星湖全集』「跋[李秉休]」)

17) 『백언시』는 『여유당전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청관총서(靑館叢書)』속에 「청관물명고(靑館物名攷)」와 함께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다산의 제자 이강희(李綱熙 1789~?)가 1818~1819년 사이 지은 『운곡잡저』에도 다산의 『백언시』가 수록되어있다. 『운곡잡저』에는 특히 이강희가 「백언시」에서 누락된 속담을 보완하여 「방언보(方諺補)」라는 한역 속담을 있어 주목된다. 다만 『청관총서』에는 「백언시」가 155장이며, 『운곡잡저』에 수록된 「백언시」는 150장이기에 이 논문에서는 『청관총서』의 「백언시」를 토대로 연구하였다. 「백언시」 서문은 『청관총서』에는 없고 『운곡잡저』에 만 보인다.

18) 한 글자도 바뀌지 않은 동일한 속담이 100여장이며, 나머지 50여장도 한 두 글자 정도만이 교체된 모습이었다. 「백언시」를 『이담속찬』에 반영하면서 제외시킨 속담은 3개로, “執錢之臂 終向內施”, “放燒花田 風景索然”, “千文不認 乃造偽印”이다. 반대로 『이담속찬』 154장 중에서 『백언시』와 관련이 없는 속담은 131번 “發怒蹴石 我足其垢”과 153번 “雖小唯椒”이다.

<표 4> 『백언해』- 『백언시』- 『이담속찬』 대조

	백언해	백언시	이담속찬
1	維兒時心, 八十猶存.	三歲之習, 至于八十.	三歲之習, 至于八十.
2	鳩子學習, 飛不過嶺.	鳩生一年, 飛不踰巔.	鳩生一年, 飛不踰巔.
3	新生狗雛, 不知畏虎.	一日之狗, 不畏虎口.	一日之狗, 不知畏虎.
4	狗尾藏久, 不成獾毛.	尾狗三基, 不成貂皮.	狗尾三基, 不成貂皮.
5	烏十二聲, 鳴聲輒憎.	烏聲十二, 無一嫵媚.	烏聲十二, 無一嫵媚.
6	鳶生三年, 獲一雌雄.	鳶踰三記, 乃獲一雉.	鳶踰三紀, 乃獲一雉.
7	蟹纔有子, 螯能齧物.	蟹子雖纖, 螯已知箝.	蟹子雖纖, 螯已知箝.
8	烏纔離樹, 梨隕其實.	烏之方飛, 有隕其梨.	烏之方飛, 有隕其梨.
9	狗悍可憎, 鼻端恒瘡.	可憎之犬, 鼻不離癩.	可憎之犬, 鼻不離癩.

위의 <표4>는 성호의 『백언해』, 다산의 『백언시』, 그리고 최종본인 『이담속찬』의 속담을 몇 장 뽑아서 대조한 것이다. 『백언해』에 운을 붙인 『백언시』가 『이담속찬』과 흡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백언해』에는 없지만, 다산은 『백언시』를 만들면서는 속담의 뜻을 부기하여 이해를 도왔다. 속담에 해설을 부기하는 형식은 『이담속찬』에도 그대로 이어진다.¹⁹⁾ 이렇듯 『백언시』는 별다른 수정 없이 『이담속찬』에 반영되었기에 다산은 문집에 실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담속찬』의 초고였으므로 서문에서도 밝히지 않은 책이 된 것이다.

(2) 『채파유의』와 『이담속찬』

지금까지 『이담속찬』에 반영된 『백언해』와 『백언시』를 검토해보았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담속찬』의 조선 속담 214장 중에서 손암이 준 60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속담이 『백언해』를 토대로 만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채파유의』는 『이담속찬』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을까.

<표 5> 『채파유의』와 『이담속찬』의 비슷한 속담

	채파유의	이담속찬
1	灌頂之水, 必流于趾.	灌頂之水, 必流于趾.
2	三歲之習, 至于八十.	三歲所習, 至于八十.
3	晝言雀聽, 夜言鼠聆.	晝語雀聽, 夜言鼠聆.
4	一日獃兒, 不知虎威.	一日之狗, 不知畏虎.
5	十指徧咋, 疇不余愕.	十指徧齧, 疇不予感.

19) 대개 같은 문구를 유지하고 있으나, 공통된 변형 규칙은 『백언시』에는 문장 말미에 항상 ‘也’가 있지만, 『이담속찬』에서는 대개 생략한 정도이다. ①“言謀事若疎, 而或冀獲大利也.”(백언시) → “言謀事若疎, 冀獲大利.”(이담속찬) ② “言我所參養者反害我也.”(백언시) → “言我所參養者反害.”(이담속찬)

6	聞則爲瘼, 不聞是藥.	聞則是病, 不聞是藥.
7	啖梨信美, 兼以濯齒.	啖梨之美, 兼以濯齒.
8	盲人之睡, 無分寤寐.	盲人之睡, 如寤如寐.
9	牛耳讀經, 其能審聽.	牛耳誦經, 何能諦聽.

<표5>는 『채파유의』와 『이담속찬』에서 같거나 거의 동일한 문형의 속담을 뽑은 것이다. 1번의 경우는 같은 속담이 그대로 수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속담은 『백언시』에는 “水灌厥鬮, 必注于足”로 되어있어서 『채파유의』와 『이담속찬』만이 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표5>의 여타 속담들을 살펴보면 상당부분 이 들이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 절에서 검토했듯이 『이담속찬』의 속담들은 이미 『백언시』에서 완성되었고 나중에 손암이 보내준 속담을 제외하면, 『백언시』의 속담이 『이담속찬』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5>에서의 속담 8과 9번을 『백언시』와 대조해보면,

<표 6> 『채파유의』- 『백언시』- 『이담속찬』 대조

	채파유의	백언시	이담속찬
8	盲人之睡, 無分寤寐.	盲人之睡, 如寤如寐.	盲人之睡, 如寤如寐.
9	牛耳讀經, 其能審聽.	牛耳誦經, 何能諦聽.	牛耳誦經, 何能諦聽.

<표6>의 속담에서 『백언시』와 『이담속찬』이 같은 문형이라는 것은 『채파유의』가 『백언해』를 『백언시』로 만들 때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채파유의』와 『이담속찬』의 관계는 같은 운을 쓴 속담을 통해서도 살필 수 있다.

<표 7> 『채파유의』와 『이담속찬』의 동일한 운자

	채파유의	이담속찬
1	鳥適辭枝, 有隕其梨.	鳥之方飛, 有隕其梨.
2	始吝一瓦, 終摧大廈.	由惜一瓦, 櫟摧大廈.
3	竈上之鹽, 和然後鹹.	在灶之鹽, 揉之乃鹹.
4	好歌雖艷, 聽久生厭.	歌曲雖豔, 恒聽斯厭.
5	彼酸者梨, 在乎味之.	彼苦者梨, 尙或味之.
6	才得乘馬, 便要御者.	既乘其馬, 又思牽者.
7	以升而授, 以斗而受.	始用升授, 迺以斗受.
8	竈苟無燃, 埃豈有烟.	竈苟不燃, 埃豈生煙.
9	鶴追鶴步, 載裂其脰.	鷓效鶴步, 載裂厥脰.
10	相彼龜脊, 焉用草蜚.	靈龜之脊, 草蜚載螿.
11	微似蚯蚓, 踐無不蠹.	相彼蚯蚓, 踐之則蠹.
12	貯喜之瓮, 風也易中.	戲棚之甕, 風必來中.

13	既已涉川, 何用乘船.	未有涉川, 而後乘船.
14	難昇之木, 且勿仰囑.	難升之木, 無然仰囑.
15	饌傳益減, 言傳益濫.	饌傳愈減, 言傳愈濫.
16	有硬其土, 惟水之聚.	行潦之聚, 亦于硬土.
17	彼虎方睡, 胡爲觸鼻.	虎之方睡, 莫觸其鼻.
18	羹之方沸, 渾不識味.	羹之方沸, 罔知厥味.
19	有黔釜底, 乃鼎之詆.	釜底鑄底, 煤不胥詆.
20	一宵丐宿, 萬里城築.	一夜之宿, 長城或築.
21	團團者餌, 無分表裏.	餽飽之餌, 安有表裏.

위의 <표7>는 『채파유의』와 『이담속찬』에 동일한 운이 사용된 것을 뽑은 것이다. 다산이 『백언해』를 접하고 운을 붙여 『백언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채파유의』를 참조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위와 같이 운자가 동일한 현상은 『이담속찬』 서문에서 밝힌, ‘손암이 준 60장의 조선 속담’에는 보이지 않는다. 60장 중 오직 “彼剗者婦, 尙贄厥鼻.”(채파유의)과 “剗鼻之婦, 獻羞於鼻.”(이담속찬)만이 같은 운을 보여주는데 같은 내용의 속담을 한역하면서 우연히 운자가 겹쳤다고 보는 수밖에 없다. 손암 정약전이 준 속담들이 『채파유의』의 문형과 운자가 다른 현상은 『채파유의』와 『이담속찬』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에 있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한 장을 제외하고 모두 다른 운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산이 정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반대로 손암이 준 속담이 아닌 154장의 속담에서 『채파유의』와 운이 맞거나 유사한 문형이 보이는 것은 『채파유의』와 『백언시』를 다산이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채파유의』는 <표5>와 <표7>에서처럼, 같거나 비슷한 속담으로 반영되거나 동일한 운자가 쓰여지면서 『이담속찬』과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820장이나 되는 조선 속담을 154장으로 축소 반영했느냐는 점은 여전히 의문이다. 이 의문에 대한 단서는 『이담속찬』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다산이 기획한 속담집의 최종형태는 중국의 속담과 조선의 속담이 함께 수록된 지금의 『이담속찬』의 모습이다. 이 책에서 중국 속담은 177장, 조선 속담은 다산이 모은 154장에 손암이 준 60장을 합한 214장이다. 『이담속찬』은 제목에서부터 왕동궤의 이담을 이었다는 뜻에서 ‘속찬’을 명시하였다.²⁰⁾ 중국 속담의 분량을 고려하였을 때 조선 속담도 그에 맞추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다산이 젊은 시절 조선 속담을 수집하고 한역했던 시도는 성호의 『백언해』를 접하면서 방향이 전환된 듯하다. 조선 속담만을 수록한 저작들 사이에서 차별성을 드러내려고 했었는지는 몰라도, 『이담속찬』의 모습이 중국 속담에 이어 조선의 속담이 수록된 것을 보면 분명 사유의 전환이 있었으리라 보여진다. 따라서 820장이나 되는 방대한 양의 조선 속담집 『채파유의』는 결국 『이담속찬』의 조선 속담 부분에 편입되고 잊혀진 책이 되었다.

20) 『이담속찬』의 중국 속담 부분에 대한 이담의 영향관계와 정리는 임미정, 「다산의 『이담속찬』 편찬과정에 대하여, 다산학 14호, 2009. 참조.

IV. 결론을 대신하여 - 『채파유의』에서 『이담속찬』까지, 다산의 속담 정리 과정에 대하여

168

위에서 살핀 사실을 중심으로 다산의 속담 수집과 정리 과정을 알아보자.

다산은 문과 급제 이후 시경강의에 참여하게 되면서 조선의 속담 수집에 뜻을 두게 되었다. 이를 듣는 대로 수집하고 한역한 것이 『채파유의』(1792년)이다. 9년이 지나 장기에서 성호의 『백언해』를 접하고, 『백언해』에서 운을 붙일 만한 것을 골라 운을 붙여서 『백언시』(1801년)를 완성하였다. 이 때 다산은 이미 정리해 놓은 『채파유의』의 속담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동일한 운을 쓰는 방식으로 『채파유의』를 참조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백언시』를 완성한 19년 뒤에서야 손암 정약전이 준 속담을 더하여 『이담속찬』(1820)의 조선 속담 부분을 완성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담속찬』의 중국 속담 부분이다. 중국 속담은 조선의 속담처럼 일괄적으로 4언 2구로 변형시키지 않았고 운을 맞추지도 않았다. 조선 속담부분이 운까지 맞춘 완성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가 조선의 속담을 『채파유의』부터 『백언시』까지 오랜 기간 다듬고 정리해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는 다산의 새 저작으로서 『채파유의』를 소개하고, 『채파유의』와 『이담속찬』의 관계를 주로 검토하였다. 『채파유의』나 『백언시』가 『이담속찬』의 초고였기에 다산의 속담 수집과 정리 과정은 상당부분 밝혀질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채파유의』가 초고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초고본과 재고본이 알려진 여타 저작에 대한 저술 과정 검토나 사유 방식의 변화를 읽으려는 연구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담속찬』의 또 다른 초고 중의 하나인 『백언시』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백언시』 역시도 다산의 저작임에도 불구하고 초고였기에 문집에는 빠져있다. 앞으로는 다산의 저작으로 인정되고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²¹⁾

다산의 저술 중에 『목민심서』는 초고본과 재고본이 있고 『흠흠신서』는 초고본, 재고본, 삼고본이 있다. 『민보의』의 경우도 흥경래난의 충격으로 단시간에 집필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현재로도 초고본과 재고본이 확인되고 있다.²²⁾ 근래에 『아언각비』나 『목민심서』에 대한 초고도 추가로 발견되고 있다. 다산 저술의 특징으로 이들 초고의 존재를 함께 다루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채파유의』나 『이담속찬』이 가진 ‘속담집’이라는 고유한 성격에 대한 고찰은

21) 『백언시』는 『청관총서』와 『운곡잡저』에 수록되어 2종이 전한다. 『청관총서』의 진위 여부를 밝히는 데 있어서도 『백언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22) 김영호, 「『輿猶堂全書』의 텍스트 검토」, 『丁茶山 研究의 現況』, 민음사, 1983. 28쪽.

‘조선 문인들의 속담에 대한 인식과 속담집 편찬’이라는 후고에서 별도로 다룰 것이다. 성호 문인들의 연이은 속담집 편찬은 속담관, 나아가 시가관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되기 때문이다.²³⁾

참고문헌

1. 자료

- 『星湖全書』 7 (驪江出版社, 1984.)
『竺言』 (한고초48-1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與猶堂全書』 (驪江出版社, 1985.)
『洌水全書續集』 (장서각 소장)
『采菴遺意』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靑館叢書』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2. 참고논저

- 김상홍, 「성호의 “백언해”고」, 『教育論叢』 제2집, 단국대학교, 1987.
김영호, 「『與猶堂全書』의 텍스트 검토」, 『丁茶山 研究의 現況』, 민음사, 1983.
송재소, 『茶山詩研究 - 附 茶山年譜』, 창작과 비평사, 1986.
신안문화원 편, 『운곡잡저』 2, 신안문화원, 2007.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편, 『(민영규 선생 기증) 귀중고서 특별전』,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2007.
장동우, 「靑館叢書」, 『연세대학교 고서해제』 VIII, 평민사, 2007.
허경진, 「采菴遺意 外」, 『연세대학교 고서해제』, 평민사, 2009.
임미정, 「다산의 『이담속찬』 편찬과정에 대하여」, 다산학 14호, 2009.
임미정, 「『이담속찬』의 이본 연구」, 다산학 18호, 2011.

23) 이강희(李綱會 1789~?)의 『운곡잡저』에는 이강희(李綱會 1789~?)가 「백언시」에서 누락된 속담을 보완하여 지은 「방언보(方諺補)」라는 한역 속담이 수록되어있다. 『백언해』를 계승한 다산의 『백언시』와 함께 논의될 수 있다.